

17/01/29(주) 주일예배 / 제목 : 아굴의 기도 (잠 30:7~9) p.943

(7)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 곧 헛된 것과 거짓 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대체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구하기를 좋아하는 데, 아굴은 너무도 단순하게 두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와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하게 해 달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아굴은 오직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굴은 물질적인 부요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노라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프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일도 있고 낙심케 하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부요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 7:14)고 했습니다.

이를 보건데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언제 풍랑이 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바람과 물결을 거스르게 되면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풍을 만나면 수월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으로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통함과 곤고함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통함과 곤고함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렘 10:23)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통한 생활을 한다고 교만하지 말 것이며, 지금 역경에 처했다고 낙심치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족과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둘 사이에는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성도가 가져야 할 기준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아굴이 구한 두 가지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본론 / 아굴이 구한 두 가지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1.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아굴은 주님께 두 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8절상)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이란 다른 말로 허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려면 우선 우리 속에 허탄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탄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허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영심과 자만심을 가리킵니다. 허탄한 생각을 품어 멸망한 사람을 아십니까? 먼저 ‘**야갈**’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한 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허탄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음 받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수를 망각한 헛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허탄한 생각을 품어 멸망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후이판**’씨는 기독교를 심히 핍박하여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기뻐하는지라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도 죽

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한번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곡물을 사다 먹는데, 그 즘 헤롯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행 12:20~23)

이에 헤롯이 날을 택하여 빛나는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헤롯의 기분을 맞추려고 크게 외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았습니. 이에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뱃속에 벌레가 생겨서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헤롯이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허탄한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숨 쉬는 것이나 심장의 박동이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완력을 믿고 자기 지혜와 재능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지위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허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생활의 도구일 뿐이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딤후 6:10).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허탄한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상)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란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 둘 점은,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요 8:44)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하나

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뱀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뱀의 거짓말에 하와는 맥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만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뱀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와의 마음에 넣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이르기를 (잠 12: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고 하신 대로, 거짓말은 언젠가 탄로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말은 마치 도금한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거짓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실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시 112:4)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시 84: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즉 우리는 언제나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굴이 구한 두 가지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1.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2.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8절하) “...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면 억만장자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이상하리만큼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요즘처럼 경제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기도가 탐탁지 않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는구절은 그럴다 치더라도,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굴이 이처럼 기도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상태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 살아갈 수 가장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물’의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정해 진 값만 내면 땅을 무한정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고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돈을 준비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농부는 촌장을 만나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조건은 ‘하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 농부가 표식을 해 둔 경계 안의 땅을 다 그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유리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농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넓은 들판을 걸어가면서 삽으로 흙을 파서 표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욕심으로 쉬지도 않고 걷고 또 걸으면서 부지런히 표식을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넓은 땅을 확보하였으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이 농부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쉬지 않고 걸으면서 표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했으므로 발길을 돌려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농부는 죽을힘을 다해 촌장이 서있는 마을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드디어 해가 서산에 넘어감과 동시에 이 농부는 촌장이 서 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결국 이 농부가 차지한땅은 그가 묻힌 한 평 남짓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마음을 다 점령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실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 10절에는 (전 5: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릅니다. “지금은 돈을 벌기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정해 놓은 목표를 이루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를 벌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생계를 위해 일 하느라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지만, 너무 풍족해도 세상 즐거움을 누리느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아굴은 자기가 이 같은 형편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재물로 인해 교만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여호와 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에게에는 한 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것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먹고살기에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자기의 수완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굴은 이 같이 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난으로 인하여 도적질이라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는 "오직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양식이 있으니 도적질할 리가 없고, 또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염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한 양식이란 하루 세끼 양식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옷도 입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시켜야 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도 하고, 병이 나면 약도 사먹고 병원에도 가야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양식은 우리의 생활에 소용되는 이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재물은 재산으로서만 의미가 있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수백, 수천억이 있어도 그 많은 재물이 실생활에 소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결국은 다 놓고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전 2:21) 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세상에 왔다가 한 평생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느라 수고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수의에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데, 참 의미가 깊습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심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은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저마다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언젠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굴과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 그리하여 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아굴의 기도가 성도님들의 진심어린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아굴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요약정리 / 아굴이 구한 두 가지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1.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2.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